

미래지향적 정책준비 '분주'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후보등록일(11월 2~4일)을 보며 앞두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각 후보진영은 마지막 정책 다듬기와 중앙총회의원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막판 세력이 전략을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 주스님은 14일 오후 3시 '승일주총무원장후보추대위원회' 소속 스님들의 출마건의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출마의사를 밝혔다. 추대위원회는 이에 앞서 관훈빌딩 1101호실에서 출마식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대위는 스님들의 종합복지대책 마련, 전국적 포교전략 구축 및 수도권 포교방안 마련, 문화유산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 정보화시대 종단 위상 정립, 종단의 사회적 위상 상승 노력 등의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조 계종 총무원장 3선반대를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공동의장 청하 외)는 14일 송현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주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자진해체를 촉구했다. 또 연대회의는 "총무원장 3선 출마에 대한 위헌성을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할 것"을 밝히는 한편 20일까지 불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발족과 관련 15일 논평을 발표, "선거에 입장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구본사 주지와 종단법규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월주 총무원장 후보추대위원회'는 총체적인 불법 선거단체"라며 자진해체를 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8일부터 12일까지로 요청한 월주스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13일과 14일 방문도 월주스님의 회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상임공동대표 석담스님, 김재일)는 13일 조

조계종 선거

월주스님 출마건의 수락
3선출마 위한 심판청구
불법선거운동 중단촉구
2백명 중회의원 선거못해
비구니 중회의원 10명 추천
후보등록전 선거운동 불법

계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주총무원장후보추대위원회" 명의의 각종 광고 및 홍보물 배포는 사전선거운동이며 불법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총무원장의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대한 입장발표를 요구했다. 또 현 총무원 소임자 스님과 총무원의 엄정중립과 각 후보들은 공정선거와 정책선거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 앙선관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14일 제32차 회의를 열어 중앙총회의원선거법 부칙 6조를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적용키로 결의했다. 중앙총회의원 부칙 6조는 "당해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타교구에서 행해지는 각급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현재 이에 해당하는 스님은 2백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종단의 관장하임을 밝히지 않은 백련문화재단의 임원과 소속

사찰의 주지들에 대해서 "선거권이 없다"고 결의했다.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가 고발한 성타스님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전 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12일 마포 석불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2대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추천자를 확정했다. 추천된 스님은 도근(석남사), 일법(대둔사), 지형(청암사), 분각(보타사), 계호(보광사), 경륜(석불사), 수현(안흥사), 운달(미타암), 해주(등국대교수), 법상(자비사) 등. 비구니회가 추천한 스님들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직능직 중회의원 선출일은 26일이다.

조 계종의 각급 선거관련법에는 사전선거운동을 따로 정의하는 대목이 없다. 때문에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제15조와 총무원장 선거법 제11조에 명시된 선거기간 10일 이전에 행해지는 모든 선거관련 행위를 사전선거 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유형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진정등의 사례를 접수받아 사항을 검토해 사전선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사안과 관련한 해당자의 징계 조항 역시 선거관련 법에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선관위는 징계권이 없으므로 해당자를 호법부에 고발하게 되고 호법부는 선관위와 일반 고발자의 고발 접수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게 된다. 고발된 사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승려법' '총무원법' 등의 중벌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임연태 · 도필선 기자
(ytlm@buddhapia.com)

'국난극복' 진각종 총인원법회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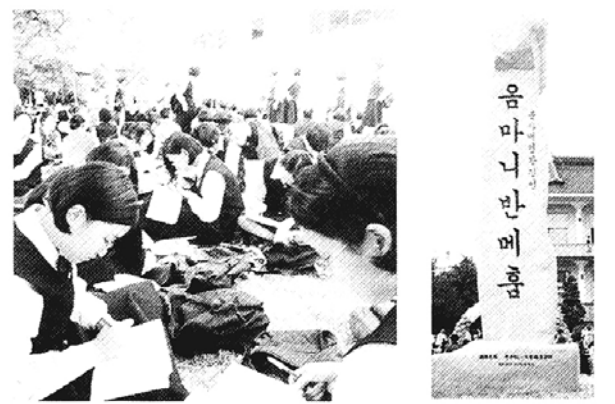
◇진각종 총인원 법당에서 열린 참회대회.



◇15일 입재식으로 3시간동안 진각종도들이 '옴마니반메홀' 정근을 했다.



◇국난극복과 민족회합을 기원하는 8m높이의 '옴마니반메홀' 6자 진언탑이 진각종 총인원 앞마당에서 제작됐다.



◇진선여고생도 3백여명도 국난극복의 의지를 글로 표현했다.



◇국난극복 진언비.



◇복지기교 마련을 위한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장이 부대행사로 열렸다.

8m 6자 진언비 제작

○...국난극복을 위해 전국순회 제6차대회로 열린 진각종 법회는 민족회합과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6자진언비 제작으로 의지를 한데 모으는 합친 감동속에 진행됐다. 8m높이의 장엄한 진언비는 각계 지도자가 제작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풍선이 덮개를 벗기고 진언비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죽비소리에 '옴마니반메홀'

○...15일 밤 열린 민족회합과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옴마니반메홀 6자진언 정근은 각해종인부터 초초통리원장을 비롯 종단간부와 탐주·밀각심인당 신도 등 2백여명이 참여했다. 죽비소리에 맞춰 총무원장의 선창에 이어 대중은 정진에 들었다. 진호곡가를 발원하는 "옴마니반메홀..." 향미영송은 3시간동안 밤하늘을 꿰뚫고 퍼져나갔다.

마당 · 잔디밭도 야단법석

○...16일 탐주심인당 마당은 마당대로 야단법석을 이워 눈길을 끌었다. 법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신도들이 앞마당에 설치된 멀티비전앞에서 법회를 보는가 하면, 잔디밭에는 백일장과 사생대회로 학생과 어린이들이 차지하고 농축산물을 직거래장터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느라 분주했다. 하월곡동 탐주심인당 진입로에서부터 심인당 담을 따라 둘러쳐진 국난극복기원 깃발 3백여장은 법회장을 의외하며 흠날렸다.

어린이들 글·그림솜씨 뽐내

○...푸른 잔디밭을 수놓듯이 진각종 소속 유치원생들과 진각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의 원생 등 1백50여명은 고사리같은 손으로 '부처님' '가족' '통일'을 소재로 국난극복의 큰 주제를 그림으로 담아내기에 열심이었다. 또 한쪽의 잔디밭에는 진선여중·고생 3백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글솜씨를 뽐냈다.

농축산물을 장터 '복적'

○...농축수협 중앙회의 협찬으로 우리 농어민들과 서울시민을 직접 연결해 저렴하고 싱싱한 농축산물을 판매한 농축산물직거래장터는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려는 실질적인 행사. 즉석에서 버무린 김치와 각두기는 인기품목으로 꼽혔다.

한편, 진각종 총인원이 주택가에 위치해 주민들의 관심과 발길을 모으기위한 이번 행사를 위해 진각종은 5만부의 홍보전단을 인근지역에 배포 홍보했다.

유럽의 3대 사회학자로 꼽히는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교수(60·런던 정치경제대 학장)와 독일의 철학자 카를 오토 아펠박사(76)가 한국에 와서 21세기의 전망을 주제로 12~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석학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가 21세기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시아적 가치관은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는 21세기에도 중시되는 덕목이다. 다만 아시아적 가치를 다른 문화와 연계, 코스모폴리탄적인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기든스)
"아시아문화는 세계보편문화화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아펠)
"때마침 한국과 일본정상의 공동선언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이 발표돼 두 석학의 말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4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행동계획'은 실천 여하에 따라 코스모폴리탄적인 가치를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한국시장개방안이 담겨있다. 일본은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칠 정도로 환영하고 있지만 우리쪽은 사정이 다르다.

"개방이 일본의 일방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수입의 상호주의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
일본대중문화개방이 한일불교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문화관광부는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불교들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할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불교는 미등록 상태

에서도 날로 교세를 넓히고 있다. 이미 한국불교측에는 나태야 천도 '수자공양', 사찰경내 날팔달 설치등 일본불교문화가 들어와 있다. 그럼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 방일 만찬에서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 불교는 백제에서 전래했다. 한국의 문화는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두나라의 우호협력 구축을 바랐다. 아시아적 가치를 말하면서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불교는 아시아적 가치와 동양의 문화를 이루는 중추이기 때문이다.

한일 기득권 연맹은 김대중대통령 방일에 맞춰 도쿄에서 국제포럼을 갖고 "남북통일운동과 함께 건전한 일본 문화가 한국에 전파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가 세계보편 문화를 만들려면 한일불교교류의 지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목어 아시아적 가치

지 않도록 수입의 상호주의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
일본대중문화개방이 한일불교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문화관광부는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불교들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할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불교는 미등록 상태

● 초대합니다 ●

태고 보우국사 전서 완결판 출판 기념법회

태고 보우국사 연구 2차 학술 발표회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현 IMF난국과 온갖 천·인재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인연관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 갈등과 대립, 도덕성 문란 등 인간본성을 상실하여 민족적 생존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태고국사 탄신 697주년을 맞아 원용회통 사상과 화쟁·화합 정신으로 고려말 오고·구상을 통합, 원용부를 설치해 조계종의 중지를 확립하고 한양친도를 건의하는 등 쇠퇴기를 이 국운을 바로잡아 보고자 진력하셨던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과 법통을 재조명해보고 큰 깨달음의 선종을 진작, 국민 각자가 스스로를 바로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만듭으로써 한국불교계와 국가사회에 올바른 진로를 찾게 하고자 합니다.
태고 보우국사 연구 제 2차 학술발표회 및 태고 전서(완결판)·출판기념 법회에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42(1998)년 10월 일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안덕암 원장 사무공

■ 안내 및 문의: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법륜사) : 02)732-3920
불교방송국 : 02)705-5114

● 학술발표 및 출판기념법회 ●

■ 일시: 1998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
■ 장소: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 학술발표 (13:10~15:10)
■ 주 제: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과 법통의 재조명
1. 임제의현의 생애와 선사상, 성본스님(동국대학교 교수)
2. 태고 법통확정의 사적 고찰 · 김영태(동국대학교 전교수)
3. 서산 문도의 태고, 법통설 천명 · 김상현(동국대학교 교수)
4. 태고선종, 정태혁(동방불교대학장)

■ 토론 (15:10~16:10)
1. 권기종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장)
1. 서울길 교수 (동국대학교 교무처장)
1. 이법산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1. 이봉춘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교수)

■ 출판기념법회 (16:10~17:30)
■ 출판내용: 태고 보우국사 전서 제 3권 완결판 (사상, 선종, 법통, 자료 등 1200쪽)
(※권 범위: 기타 450여쪽 II권논총: 논문23편 1,000쪽: 비매품)
■ 출판기념품 증정: (점석자 집헌)
태고 보우국사 전서 제3권 완결판 1권 보시함

·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태고종, 대륜화상문화회, 각신문 방송국